

방송계 동향

NEWS

broadcasting
& technology
vol. 279**한국방송협회****‘지상파 재송신 대가(CPS) 제대로 지불하라’ 잇따른 판결**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 재송신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또 다시 지상파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14일 KBS와 MBC가 한국케이블티브이 푸른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광주방송, JCN 울산중앙방송, CCS충북방송, CJ헬로 하나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지상파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청구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와 정당한 계약 없이 재송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상파가 청구한 통상사용료 CPS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190원만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지난 1심 판결을 근거로 190원이 적절한 CPS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상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SBS**SBS 정상화 협상 타결. 10년 갈등 종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본부장 윤창현)와 사측간의 <SBS 정상화 협상>이 지난 2월 20일 전격 타결되었다. 홀딩스 체제로 인해 10년 넘게 계속된 SBS 수익 유출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고 2018년 임단협도 매듭을 지었다. 2월 11일부터 시작된 윤창현 본부장의 철야 농성과 1100명의 조합원이 함께한 서명운동,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피케팅 시위가 낳은 쾌거였다.

SBS 기술인협회도 직능단체의 일원으로 타 직능단체 그리고 노동조합과 SBS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노동조합의 고행에 힘을 보태고자 조직적으로 피케팅 시위에 참가하였다.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 TV, 동남아시아 최대 OTT 사업자 진입**

아리랑국제방송은 동남아시아 최대 OTT 사업자인 아이플릭스(iflix)를 통해, 2월 한 달간 시험방송을 거쳐 3월부터 정식 방송된다. 동남아시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아이플릭스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 17개국 이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아울러 아이플릭스의 아리랑 브랜드관을 통해 아리랑국제방송의 주요 인기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KBS**KBS ‘제작 2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 시행**

KBS가 3월 1일자로 콘텐츠 중심, 디지털 혁신, 시청자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KBS는 현행 6본부 1실 1사업부 2센터 63국 202부에서 6본부 1실 3센터 61국 199부 체제로 바뀌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마케팅·콘텐츠 사업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제작 2본부를 신설해 제작 조직의 자율성 강화와 의사 결정 단계를 줄여 우수한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디지털 전략과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KBS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실에 PSM(Public Service Media) 전략부 신설과 편성본부 내 디지털미디어국도 확대 재편했다.

tbs**tbs 3.1운동 100주년 특집 방송**

3월 1일, tbs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3.1운동 100주년 특집 방송을 제작했다. tbs 공개홀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청취자들과 함께 ‘3.1운동 3일간의 기록, 우리가 미처 몰랐던 3.1운동 이야기’를 주제로 100주년 기념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BBS

BBS, '아름다운 동행'에 성금 기탁

BBS 불교방송 라디오 '거룩한 만남' 청취자들이 모은 정성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해졌다. 선상신 BBS 사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성금은 '거룩한 만남'이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와 한부모, 저소득 가정 등을 돕기 위한 5차례의 모금 방송을 통해 마련되었다. 불교방송은 '거룩한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1420여 가족에게 110억 원 이상 지원을 하였다.

MBC

MBC ON 2월 18일 개국

MBC 스포츠플러스2채널이 MBC ON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콘텐츠 소비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4, 50대와 부모 세대의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2, 30대를 타깃으로 오래전 MBC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개국 기념으로 1992년 큰 사랑을 받았던 국민드라마 '질투'를 리마스터링을 통해 다시 방송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추억과 새로움을 동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CBS

CBS, 신입, 경력직 사원 채용 결과 발표

CBS는 2018년도 신입, 경력직 채용 결과를 발표했다. 엔지니어 직군에는 본사 3명(신입2+경력1), 대구 1명, 광주 1명, 청주 1명, 강원 1명으로 총 5명의 신입사원과 경력 사원 1명이 채용됐다. 신입사원은 공통교육이 끝난 후 각 지역 기술국으로, 경력 사원은 ICT R&D 센터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인공지능 기반 '기가지니2 스카이라이프' 출시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IPTV를 접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 출시 10년 만에 마침내 스마트홈 서비스를 추가한 인공지능 기반의 STB '기가지니2 스카이라이프'를 지난달 출시하였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고객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리모컨 없이 음성명령으로 이뤄지며 스크린을 통한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이다.

YTN

YTN 디지털 홍보 플랫폼 'INSIDE YTN' 오픈

YTN 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팀은 2월 11일 YTN의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YTN 디지털 홍보 플랫폼 'INSIDE YTN'을 런칭했다. (inside.ytn.co.kr)



EBS

EBS 3.1절 10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제암리 100년의 기억' 방송

EBS는 3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40분, 3.1절 특집 다큐 '제암리 100년의 기억'을 통해 제암, 고주리 학살이 한국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앞으로 또 다른 100년,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얘기했다.

